

‘지눌’

이덕진 편저

예문동양사 상연구원이 한국의 사상가 10인 시리즈 불교사상 분야 세번째 권으로 출간된 <지눌>

“마음이 무엇인가” 설법 요점 분석

>예문서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사상이 가운데 한 사람인 지눌(1158~1210) 스님 관련 주요 논문을 모았다. 지눌의 선사상이 한국불교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 없

이는 현재의 한국불교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눌이 가장 크게 생각했던 문제는 인간의 문제였다. ‘인간’을 알려면 ‘나’를 알아야 하고, ‘나’를 알려면 ‘심(心)’을 알아야 하고, ‘심’을 알려면 모든 생각이 출입기멸하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보아야 한다. 마음이 나타나는 모양은 말할 수 없이 다양다변하고 무궁무진한데, 도대체 무엇이 이처럼 나타나는가. 지눌이 평생을 통해 설한 바는 오로지

‘이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고자 한 것이었다.

‘지눌 선사상 체계의 이해’, ‘지눌 선사상의 돈오와 점수에 대하여’를 비롯해 4 부분으로 나눠 15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값 2만6천원.

건축물 양식·배경·주변교통 소개

충청북도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단행본이 잇따라 발간됐다. 충청개발연구원(원장 이태일) 충청문화연구소는 지역 사람과 불교유적을 소개한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와 지역 건축문화 발달 과정을 소개한 <충북건축기행>을 동시에 내놓았다.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 ‘충북 건축기행’

충청 개발원 발행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는 단양 구인사와 20세기에 지어졌지만 전통 목조건축을 그대로 재현한 진천 보탑사, 비구니 사찰로 이름 높은 음성사의 미타사, 화양사와 패불제

로 유명한 안심사 등을 소개하고 있다.

<충북건축기행>에는 속리산 부설 충북학연구소는 지역 사람과 불교유적을 소개한 <충북의 사찰을 찾아서>와 지역 건축문화 발달 과정을 소개한 <충북건축기행>을 동시에 내놓았다.

건축 체험장이 소개되어 있다. 건축물의 양식, 배경, 위치, 교통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안내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충청북도는 이번엔 발간된 200여부의 책자를 도내 도서관과 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여수경 기자 snoopy@buddhania.com

<엄마랑 아빠랑 절에 갔어요>(가교)는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안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절의 여러 건물과 탑, 범종, 석등, 풍경의 유래와 기능 등을 쉬운 말로 안내하고 있는 어린이 불서다.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우연한 기회에 절에 들리게 되더라도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접하게 되는 절의 건물과 불구 그리고 절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등 부단없이 불교와 절에 관한 기초적인

절의 모든것 쉽게 쓴 어린이 불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잘 몰라요’라는 코너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칫 이해하기 어려운 불교용어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더욱 쉽게 읽힌다. 또한 우리 민족 고유 신앙의 대상들이 불교와 결합해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어

‘엄마랑 아빠랑 절에...’

홍주연 엮음

있다. 산신을 모신 산신각,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 복두칠성, 또 이들 산신과 복두칠성



신을 복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독성과 함께 모셔 놓은 삼성각이 그러하다. 엮음이 홍주연 씨는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산에 가면 절에 들렀을 것이다”며 “이 책을 읽고 나면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값 8천원.

조동종 핵심사상 첫 국역 출간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

이창섭 · 최철환 옮김



<중편조동오위>는 <삼국유사>를 빼면 일연 스님의 유일한 현존 저술로 사자(師資) 오위(五位 : 선의 입장을 정(正)과 편(偏)의 체계로 분류하는 다섯가지 방법)에 관한 책이다. 선종의 한 파인 조동종의 오위설(五位說)에 대해 주를 보완하여 간행한 것으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동오위설이란 동산 양개(807~869)가 제창한 편정오위설(偏正五位說)에 그의 제자 조산 본적(840~901)이 주를 붙인 것이

조선 성종 6년(1475)에 주해한 <심현담요해>와 만해 스님이 주를 달은 <심현담주해>를 합편하여 번역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조동종 관계 중요 저술이 모두 번역되는 셈이다.

<심현담>은 선의 오묘한 이치를 열 가지 면으로 노래한 선시로, 그 경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문학성 또한 뛰어나 선시가운데 백미로 꼽힌다.

대한불교진흥원 서문각 이사장은 발간

심현담, 禪의 이치 노래 문학성 뛰어나

“목조선 더 연구·수행되는 계기되길”

로 조동종의 중심사상이다. 이것이 고려에 전해지면서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아 일연 스님이 51세 되던 고종 6년(1256) 여름 두류산 김강암에서 옛 간본을 참고하여 바로 잡고 자신의 견해를 보완한 것이다. 일연 스님은 이 오위설의 편정에 군신(君臣)을 대비시켜 군신오위설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동산 상철(?~961) 선사 가 지은 <심현담>을 법안종의 개조인 청량 문익 선사가 주를 붙이고, 설장 스님이

사를 통해 “현재 우리 불교계는 간화선 일변도의 선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동종의 선 수행법인 목조선도 간화선과 더불어 선불교의 큰 흐름을 형성했던 선법의 하나임이 분명하다”며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조동종의 목조선이 더욱 연구되고 수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옮김이는 이창섭(전 동국여경원 역경위원) 씨와 최철환(동국여경원 편찬부장) 씨. 값 1만2천원.

출판 담당= 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새로나온 책

는 편지 제목이기도 하다. 값 8천5백원.

▲생활 속의 금강경(우룡 스님 지음, 효림) = 울산 학성선원의 조실로 있는 우룡 스님이 대승불교의 기본 경전인 <금강경> 32분에 대해 강설한 내용을 묶었다.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거와 현재의 고승들에 얽힌 일화, 생활 속에서 부딪히

는 상황들이 풍부하게 인용돼 있어 읽는 속도감을 더한다. 값 6천원.

▲허무 우주로부터의 메시지(무묘양에오 지음, 박은혜 옮김, 모색) = 예오 명상 전진의 10번째 작품이다. 사고, 감각, 감정에 관한 7가지 질문과 의식과 명상에 관한 9가지 질문, 우주의 탐구에 관한 5가지 질문에 대해 예오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값 9천원.



>중국 근대 고승 허운 화상의 제자인 관정 큰스님.

‘극락은 있다’ 대주 스님 옮김

극락세계는 어떠한 모습이며,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중국 관정 스님의 6년 5개월 극락 체험기 <극락은 있다>(뽕다의 마을)를 권한다.

관정 스님은 근대 중국 고승 허운(虛雲 1840~1959) 화상의 제자로, 육조 해능 대사에서 청원행사로 이어지는 동은종(洞雲宗) 제48대 법맥을 잇고 있다. 허운 화상으로부터 참선을 배워 ‘염불하는 놈이 누구인가(念佛者是誰?)’라는 화두를 들고 수행한 스님은, 보통 2~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동안 선정에 들 정도로 깊

선정 중 체험한 극락세계 그려

은 경지에 다다랐으나 삼계(三界)를 초월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스님은 1967년(당시 44세) 10월 25일~1974년 4월 8일까지 6년 5개월 동안 선정에 들어 천상과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두루 참관했다.

이 책은 스님의 극락세계 법문집 시리즈 중에 처음으로 출간된 것으로 스님이 직접 체험한 생생한 극락세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극락세계는 물질계 즉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상상력으로는 믿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세계임을 강조하는 스님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발원과 선행, 염불수행의 실천을 통해 누구든지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파한다. 번역은 대주 스님(인천 정토선원)이 맡았다. 값 8천원.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대한불교진흥원은 한국 조동종의 맥을 이어주는 문헌인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출간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신라 말 고려 초 진철이 엄 선사에 의해 구산선문 가운데 마지막 산문인 수미산문을 열고 조동종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 와서 조동선은 침체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맥을 이어지게 한 것이 바로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이다.

▲영혼의 모음(법정 지음, 샘터) = <무소유> <산에는 꽃이 피네>로 일본에도 널리 알려진 법정 스님이 1973년 펴낸 책의 개정판이다.

70여 편의 글들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서울 불은사 대래원에 머물 때 신문과 잡지에 기고한 것들이다. 법정 스님이 펴낸 첫 수상집이다. ‘영혼의 모음’은 법정 스님이 어린 왕자에게 보내

기도·49재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불교의 3대 신앙 지침서

‘나무아미타불’

이름들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불교 신앙사에 있어 단연 제일의 위치를 차지하였던 미타신앙!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은 내생 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극락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 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구성>

- I 극락을 여는 미타신앙 II 아미타불의 본연 III 염불의 공덕 IV 칭명염불 수행법 V 관상염불 수행법 VI 천도와 미타신앙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올바른 관음기도를 위한 길잡이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관세음보살의 근본 원력과 구원능력, 관음관법과 관음기도법이 상세히 실려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가져다 주는 법! 부디 이 책을 참고로 관음의 자비 속에서 소원을 성취하고 행복의 문을 열기 바랍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은 어떠한 분인가?

행복을 보장하는 지장기도 방법은?

지장신앙·지장기도법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 기도법,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뒤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인 것입니다.

목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부디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지비광명 속으로 들어가는 문호를 활짝 열어 보십시오. 기꺼이 끊어내어 버리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구성>

-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x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범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 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기도 방법에서부터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기도



총 6장 52편의 다양한 기도성취 영험담으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